



나주소방, 영산강 축제 소방안전체험장 운영

나주소방은 지난 9~13일 나주시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린 나주영산강축제에서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소방안전체험장에서는 축제장을 방문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소화기 체험 △완강기 장비 착용·사용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다.

박연호 나주소방서장은 “이번 영산강축제 행사장에서 다양한 소방안전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 필요한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게임개발자 컨퍼런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2024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일빌딩245와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개최됐다. ‘K-GAME의 새로운 시작, 광주’를 주제로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해 방문객들이 게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원스토어 전동진 대표이사의 기조 강연(주제: 원스토어 글로벌 전략 및 플랫폼의 변화)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에서 온 해외 연사들과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4:33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기업들이 대거 참석해 국내외 게임 업계 동향을 공유했다.

좌담회에서는 게임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 북부소방, 의용소방대 10월 정기교육 실시

광주 북부소방은 16일 북구 매곡동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의용소방대원 10월 정기소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에는 신임 남·녀 의용소방부대장 임명 및 임명장 수여식을 포함해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및 반부패 청렴교육, 화재예방 순찰 시 안전관리수

칙 등 주의사항 전달이 이뤄졌다.

서원남 북부소방 119재난대응과장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방조직의 동반자로서 의용소방대에 근무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한 북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 기간 생일자 이벤트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생일을 맞은 선수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사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 11일부터 경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시 대표선수단 중 생일을 맞은 17개 종목 22명의 선수들을 찾아가 케이크 교환권을 선물하며 축하했다. 생일을 맞은 선수는 배드민턴 서재우(광주은행), 레슬링 이종선(조선이공대), 배구 차예진(광주여대), 스쿼트 고영조(광주시체육회), 검도 서규원(서석고), 수영 박근대(남부대), 양궁 김재운(광주시청), 사격 봉서린(광주시체육회), 체조 김미소(한국체대), 유도 전지연(조선대), 조정 박성빈(광주체고), 소프트테니스 김은혜(송원대) 등 22명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전국체전을 대비해 열심히 준비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작지만 큰 행복을 느끼고 남은 경기 도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동환 기자



도로공사 지역본부, 외톨이 지원센터 후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지역 내 은둔형 외톨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난 15일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개설된 전담 기관이다. 현재 그들을 위한 생활개선 프로그램, 가족대상 교육 및 은둔자 모임 소통행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후원을 통해 광주지역 내 거주 중인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발걸음, 당사자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수행, 사회복귀 지원 등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아무튼 출근!’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은둔형 외톨이들의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광산구-유관기관, 어르신 건강증진 MOU

광주 광산구는 지난 15일 남부대학교 삼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에는 광산구보건소와 행복나루노인복지관, 남부대학교 사회봉사단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보건 교육을, 시설관리공단은 교육 인원 모집과 홍보, 남부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연구 및 학생 인력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담당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hy사내봉사단, 서구 돌봄이웃에 밀키트

광주 서구 치평동은 지난 14일 (주)hy(에치와이·옛 한국아쿠르트)사내봉사단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키트(6종)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홀몸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hy사내봉사단과 치평동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전달식 후 관내 돌봄이웃 20세대를 방문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김동관 치평동장은 “기업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해 주신 hy사내봉사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hy사내봉사단 ‘사랑의 손길퍼기회(사손퍼)’는 지난 1975년부터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지역사회를 돕고 있다.

정상아 기자

조세호, 20일 신라호텔서 결혼… 측가 태양·축사 이동욱

개그맨 조세호(41·사진)가 9세 연하의 비연예인 신부와 결혼식을 올린다.

조세호는 오는 20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예비신부는 9세 연하 회사원으로, 지난 1월 열애를 인정했다.

주례는 개그맨 전유성, 사회는 남창희가 맡고, 가수 김범수와 태양, 거미가 축가를 부른다. 배우 이동욱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조세호는 21일부터 열흘간 신혼여행을 다



녀을 계획”이라며 “최근 이사한 용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세호는 2001년 SBS 공채 6기 개그맨으로 데뷔해 오랫동안 예명 ‘양배추’를 사용해 왔지만, 지난 2011년 말부터 본명으로 활동했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KBS 2TV ‘1박2일’ 시즌4, JTBC ‘극한투어’ 등에서 활약 중이다.

곽지혜 기자

‘前 티아라’ 류화영, 유튜버 변신 “친근하게 다가가고파”

‘티아라’ 출신의 배우 류화영(사진)이 유튜버로 변신했다.

류화영은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영상도 촬영해 보고 편집도 해보다가 제 스스로 ‘아 내가 이런 모습도 있구나’ 느끼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어 영상도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라고 밝혔다.

이어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일상의 소소한 웃음도 얻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별거 아니니 가볍게 다가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힐링이 되



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였다.

이날 류화영이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유튜브 채널 ‘류화영’ 홈페이지가 담겼다. 류화영은 자신의 채널에 ‘첫 브이로그 30대 여배우 일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한편, 류화영은 지난 2010년 티아라 멤버로 데뷔해 ‘롤리폴리’, ‘크라이크라이’, ‘러비더비’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팀 내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2012년 티아라를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했다.

곽지혜 기자

‘뉴진스 다니엘 친언니’ 올리비아 마쉬, 싱글 ‘42’ 발표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친언니인 싱어송라이터 올리비아 마쉬(사진)가 정식으로 데뷔한다.

16일 소속사 앰플리파이에 따르면 올리비아 마쉬는 이날 정오 12시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데뷔 싱글 ‘42’를 발표한다.

‘42’는 올리비아 마쉬가 고향인 호주에서 자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만든 곡이다.

그는 아바(ABBA), 존 덴버(John Denver), 테임 임팔라(Tame Impala)·베라 블루(Vera Blue)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로부터 영감을 받아왔다고 밝혔으며 어린 시절부터 노래와 작곡을 이어왔다.



올리비아 마쉬는 이날 세계 3대 뮤직 마켓으로 불리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 시드니(SXSW Sydney)’ 쇼케이스 무대에 올라 팬들과 만난다. 이 자리에서 올리비아 마쉬는 데뷔곡 ‘42’를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올리비아 마쉬의 소속사 앰플리파이는 최근 설립된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글로벌 레이블이다. 앰플리파이는 지난달 13일 소속사 첫 번째 아티스트로 올리비아 마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